

“고품질 전력 경제적 공급 역량이 분산에너지 성패 관건”

전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 주요 내용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저렴한 재생 전력 공급할 수 있어야 전기 사용량 많은 데이터센터·RE100 필요 첨단 기업들 끌어들여 저탄소 에너지 적기 공급 할 기업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수립 필요

14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에너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지역의 산업 특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포럼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전남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와 RE100 달성을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들을 유치, 지방소멸을 막고 미래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을 계기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렴한 전기 공급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고품질 전기에너지를 경제적으로 공급해야”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의미와 후속 정책 과제’라는 기조 연설을 통해 “AI, 첨단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미래 주력 산업은 저탄소, 고품질 전기에너지를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국가가 주역이 되는 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적자 생존 시대가 아닌, 전자(電子) 생존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으로,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남지역 전력 자급률(171.3%)이 이미 100%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 해남 솔라시도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경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첨단 반도체·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들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얼마나 저탄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한전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전남이 분산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되면 규제 완화가 됐든 자율 거러가 됐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분산에너지법(43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사업자·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나주의 경우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또 영암, 해남지역의 태양광과 신안 해상풍력 등을 있는 RE100 실증단지를 구축하거나 광양제철 등 전남 최대 규모 산업단지를 있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승일 한국에너지공단대 석학교수는 “전남에서

‘RE100을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며 “최고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량을 갖추고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더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면 전남도가 특화지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산업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전남도는 지역 내 협업 기업들과 풍부한 전력 생산량과 지역별 산업 특성을 감안한 7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특화지역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ESS 허브터미널(나주) ▲이동형 ESS(영암) ▲재생e 허브터미널(해남) ▲LNG 열병합발전(광양) ▲행정수소공급망(여수) ▲데이터센터 연계 통합발전소(장성) ▲폐열활용 스마트 펌프 열공급(나주) 등을 추진중이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날 포럼에 참석, 경제적으로 저탄소 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박현승 현대엔지니어링 신재생사업2팀 팀장은 ‘산단형 ESS 허브스테이션 구축 사업’을 주제로 나주 내 ESS(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팀장은 에너지 공기업이 모여있고 가까운 광주에 기아공장, 글로벌모터스가 RE100을 선언한 기업인 점 등을 들어 나주를 ESS 최적지로 평가했다.

박 팀장은 “현대차 그룹이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기준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등을 고려해 입찰 여건을 따지겠다는 뜻”이라며 “RE100을 선언한 대기업을 떠나 전남도 내 여러 부품 관련 기업 역시 RE 100으로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권효재 (주)한양 상무는 ‘솔라시도 재생 에너지 허브 터미널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이라는 ESS와 데이터센터를 물리적으로 가까이 뒤 선로를 직접 연결하고 송배전망의 필요 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 상무는 “분산에너지의 비전은 ‘지산지소(地産地消)’이다. 지산지소로 송전망이 없는 호남의 문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사업개발본부 본부장은 ‘탄소 저감형 집단에너지를 통한 산업단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모델’을 주제로 “산업단지 에너지는 수요 패턴이 일정하고 사용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산단 입주 기업에 맞춤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업과 최적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4일 오후 국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첨단 기업들 유치로 지방소멸을 막고 전남의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용방안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尹, 중남아시아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우즈베크에 한국 고속철 수출 계약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아시아 3개국 순방은 자원 부족들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K 실크로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 기간 무엇보다 천연가스·원유·핵심 광물 등을 다량 보유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고속철을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사업,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 정부의 중남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남양 5개국 정상회

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의 동의를 끌어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중남아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리튬·우라늄·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 광물이 다양으로 매장된 지역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이 체결됐다.

이를 통해 리튬·망간·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의 탐사와 개발·생산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규모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인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기공합의서’와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산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키안리에 건설을 계획 중인 요소·암모니아 비료 공장의 수주에도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르크메니스탄 내 사업 규모를 모두 더하면 약 60억 달러(8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수출이 성사됐다.

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 것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26%...2주만에 5%p 반등

한국갤럽...국힘 30%·민주 2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5%포인트(p)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6%로 나타났다. 취임 후 최저치 21%를 기록한 직전 조사(지난

달 28~30일)보다 2주 만에 5%p 올랐다. 부정 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70%)보다 4%p 하락한 66%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개혁당 4%, 진보당과 새로운미래 각각 1%, 지지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3%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지난해 8월 말에도 27%를 기록한 바 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로 집계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당 이상준 의원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 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각각 1%로 뒤를 이었다. 42%는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정량성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령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